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

전북도, 김관영 지사·도민 등 1000여명 참석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가져... 7일까지 다채로운 행사 개최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전북도는 지난 1일 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양성평등 유공자, 양성평등단체,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주제로 2023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23 전라북도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양성평등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윤정미)가 주관한 올해 행사에서는 도내 양성평등문화 진흥에 앞장선 대한미용사회 전라북도지회 등 16개 단체와 전북여성가족재단 신은주 주무관 등 17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 화합한마당 등 순으로 진행됐다.

등 홍보동영상 상영과 가수 현숙을 초청한 화합한마당 행사도 이뤄졌다.

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가정을 돌보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같이 해야 남성과 여성 모두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개인의 자아를 비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평등! 같이 하는 전북!'이라는 전북도의 주제 아래, 참여자 모두가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실천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양성평

등 홍보동영상 상영과 가수 현숙을 초청한 화합한마당 행사도 이뤄졌다. 기념식과 함께 △경력단절여성 구인구직 상담부스 운영,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전주시 등 14개 시·군에서도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

롯해 지역과 나라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이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도 활발하게 운영중이다"며 "일상 속 성평등이 일터로, 일터 내 성평등이 다시 삶으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

김관영 지사,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운동 전개

김관영 도지사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 지사는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한 실천을 다짐하고 플라스틱 없는 전복을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담아 '안녕(Bye)'이라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영상과 함께 챌린지 참여 글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재했다.

4개 거리 50여 개 업소가 참여하는 '제로 플라스틱 전북'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는 참여자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도내 커피전문점과 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생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생활 속 실천 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도에서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와 함께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1회용컵을 줄이고 다회용컵(공유컵) 사용을 늘리기 위해

한편,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김관영 지사는 다음 주자로 도내 14개 시장·군수와 함께 서거서 교육감을 지목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이용 '사전등록제' 운영

전북도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이용 대상자가 필요시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장기계획 수립 논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갖고 추진상황 점검



전북도는 지난 1일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도내 거주하는 만 6세부터 64세까지의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최대 7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전북도는 지난 1일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3월부터 본 용역에 주관기관으

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특례발굴추진단을 구성하여 655개의 특례를 발굴, 232개의 조문으로 정리하는 전 과정을 도와 함께 했

다. 또한 지난달 30일 의원발의되어 국회 심사 예정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중 194개 제도개선과제의 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특례반영 논리를 개발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 1차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의 큰 그림인 중장기계획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비전체계에 따라 2040년까지 단계별 전략과 이에 따른 목표, 중점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남아 할 산은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며, "치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도 부처 활동시 발굴 특례별 설득논리를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번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하며, 중장기계획 수립, 2차 전부개정안 마련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5기 인권위원회 워크숍 개최

전북도는 지난 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3 전라북도 5기 인권위원회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월 4일 새롭게 위촉된 전라북도 5기 인권위원들이 참석하여 전북도 인권정책을 공유하고 인권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 방향 등에 대해 다뤄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강사로 나선 두 번째 인권특강에서는 '지역인권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방정부 인권보장체계와 지방정부의 인권분야 역할을 다루는 등 인권에 대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인권 제도화를 통한 인권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제2차 전라북도 인권 기본계획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종섭 전북연구원 박사의 강의를 진행했는데 전라북도 인권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방적 인권행정의 나아

워크숍에 참여한 인권위원들은 강의 내용에 적극 공감하며, 도내 인권증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소통간담회 가져

전북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지난 1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총괄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전북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참여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상황과 발굴과제 등 추진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전북 농정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높은 수준의 농생명바이오분야 국책사업 발굴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된 혁신성장 기구이다.

또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괄기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 추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각 분과에서는 분야별 국책사업 발굴 및 기획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지역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김재훈 기자

이번 소통간담회는 새만금농생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반려동물·말산업 4개 분과위원회의 현재까지 운영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